



불서읽기 캠페인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짓고 일어나라

보조지불 지음|김달진 옮김
동화출판사 펴냄|1만8000원

지금 불교계에 필요한 결사는 무엇일까?

세상의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 한 시대의 사조(思潮)도 풍속도 결국 변화를 피할 수 없고 종말을 향해 가지 않을 수 없다. 불교를 국가의 근본으로 세워진 고려도 멸망의 길을 피하지 못했다. 고려시대의 불교도 한 왕조의 몰락에 깊이 얽혀있었다. 공부하는 풍토가 변하고 시절 인심이 변하는 가운데 고려불교의 정체성도 명물처럼 흐릿하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

몰락의 시절엔 남 보다 일찍 몰락을 예감하고 새로운 부흥을 위해 온 몸을 던지는 의인도 나온다. 고려불교의 말기적 징후 속에서 피어난 의로운 꽃한송이, 보조지불 스님이다. 지불 스님의 결사운동은 한 시대의 종교와 풍속과 국운

이켜 보면 어떤가? 불법(佛法)이 핑계하여 '나' '다' '남' 이다를 구별하여 이양(利養)의 길에서 허덕이고 풍진의 가운데 골몰하여 도덕은 닦지 않고 의식(衣食)만 허비하니, 비록 출가하였다 하나 무슨 덕이 있겠는가? 아아, 삼계를 떠나려 하면서도 속세를 벗어난 수행이 없고 한갓 사내의 몸이 되었을 뿐이요 장부의 뜻이 없어 위로는 도를 닦는데 어긋나고 밑으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지 못하며 중간으로는 네 가지 은혜를 저버렸으니 진실로 부끄럽다."

지불 스님의 부끄러움이 오늘날 우리 불교계에는 없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이미 참회의 여지를 포함하고 있으니 개선의

지불 스님이 주창하고 이끈 결사운동의 저력 담겨
선지식의 간절한 염려가 오랜 시간을 넘어 전해져

을 부여받은 몸부림이었다.

그 몸부림을 독려하는 지불 스님의 간절한 마음이 알알이 스며든 글들. '권수정해결사문'에서 '수심결' '진심직설' '원돈성불론' '간화결의론' '법집법행록집요병인사기' '계초심학인문'까지. 이 금강석 같은 글들은 해 저무는 고려조의 불교계에 불성을 발현하여 세상을 편하게 하기 위해 몸부림친 승단이 견재했음을 보여주고 남는다.

지불 스님이 주창하고 이끈 결사운동의 저력이 고스란히 담긴 글은 '권수정해결사문'이다. 앞부분부터 한 대목씩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오늘날의 불교계 현실, 시국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온 몸이 떨리지 않을 수 없다. 지불 스님의 글을 읽으며 수시로 물어 보라. '지금 불교계에 필요한 결사는 무엇일까'를.

"우리들의 소행을 아침저녁으로 들

여지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지불 스님의 글들에 눈길이 가고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울 수 있는 선지식의 간절한 염려가 800여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의 귀를 때리기 때문이다.

동화출판사가 새롭게 기획한 '한국 사상대전집' 시리즈의 기저도 '고전에서 미래를 읽는다'이다. 옛 선지식의 글을 통해 오늘을 점검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를 탐색해 내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일이다.

지불 스님의 간절한 마음을 길어 올리는 길. 김달진(1907~1989)의 안내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다. 금강산 유점사에서 입산 수도를 했던 큰 학자이며 시인인 김달진이 느낀 지불 스님의 간절함이 오늘날 이 환경의 책으로 다시 세상의 문을 두드린다.

임연태 기자

譯者, 책을 말한다

깨달음의 차례 '차곡차곡' 설명

#깊은 견해의 전승과 크고 넓은 행의 전승
'보리도에 이르는 차례'라는 전통은 인도의 성지에서 시작된 석가세존의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여러의 지혜바라밀의 경에 보리도에 이르는 차례의 전통이 빠짐없이 전해져왔다. 어떤 식으로 전해져 있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보인 견해의 차례와, 그 뒤에 도의 차례를 보인 넓은 행의 차례가 있고, 그 위에 밀교의 차례가 있다. 이 밀교 또한 여러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여러께서 말씀하신 밀교를 밀교의 가피의 전승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보리도에 이르는 차례'의 전승에는 깊은 견해의 전승과 크고 넓은 행의 전승과 가피의 전승 셋이 있다. 즉 깊은 견해의 전승은 석가세존에서부터 문수보살에게로 전해져서 문수 보살과 월징으로 내려 왔고, 크고 넓은 행의 전승은 석가세존에서부터 미륵보살에게로 전해져서 무작 보살과 사지현 보살로 내려왔다. 가피의 전승은 밀교의 삼도(三道)들이다. 이렇게 한 줄기씩 각각으로 흐르던 이들 전승들은 성스러운 나란다승원의 대화장이었던 아타사 존자님에게로 모두 내려왔고, 아타사 존자님께서는 티베트로 가서 이들 전승 셋을 바탕으로 <보리도등론(菩提道燈論)>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뒤에 풍카파 대사께서 그 <보리도등론(菩提道燈論)>을 넓게 해석해서 <보리도에 이르는 차례 대, 중, 소>를 지으셨다. 그렇기에 지혜바라밀의 경의 가르침인 보살의 방편과 지혜의 실천 모두가 빠짐없이 석가세존에서부터 인도 나란다승으로, 나란다에서 티베트로 그리고 지금 이 <보리도에 이르는 차례>로 빠짐없이 전해져 와 있다.

#소장부에서 대장부로 나아가는 길
<보리도에 이르는 차례>는 실천적인 면으로는 처음 선지식을 의지하는 방식에서부터 보리도에 이르기까지의 차례가 모두 모여져 있다. 이것 또한 한 유행 중생이 어떻게 실천수행을 하는가 하는 방식이다. 장부셋(丈夫三)의 차례에서 그 자신의 마음의 힘과 능력에 부합해서 맞게 하는 것이다. 즉 처음 소장부(小丈夫)의 핵심은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 뒤에 마음이 조금 성장하게 되면 중등장부라고 부르고, 그 뒤 마음에 용기와 능력과 힘이 크게 생겼다면 대장부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비유하면,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이 위대한 논(論)의 원저자는 여러께서 예언의 말씀을 미리 남기신 불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 중에 한분이신 룡상당 바 풍카파 대사다. 이 분의 위대함은 이 분께서 행하신 행적과 사업과 이 분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서는 이 논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보리도에 이르는 차례 넓게 설명 것이 여기에 있다
 룡상당바 풍카파 지음 | 도향 옮김 | 하늘북 펴냄 | 3만2000원

공부방법과도 같이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고등과 대학으로 가는 것보다 같은 것이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장부셋'이라고 표현한 것은 세 부류의 어떤 유행을 표현한 것이 아닌 한 유행이 여러의 지위에 나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기에 한 유행 자체 그 스스로가 소장부(小丈夫)이고, 중등장부(中等丈夫)로와 대장부(大丈夫)의 도(道)로 가는 것이다.

그 뒤 대승의 마음인 보리심을 일으킨 뒤에는 보리를 이루는 방편인 육바라밀을 행하고 바라밀행을 이루면 밀교의 수행 차례를 더해서 밀교의 관정과 밀교의 선정 등 부처로 나아가는 차례, 이들을 틀리지 않고 그 순서가 뒤섞이지 않게 행과 견해의 모든 불법 일체를 갖춘 도에 이르는 차례, 석가세존에서부터 그 전승과 전통이 끊어짐이 없이 전해온 가르침이 여기 이 논에 실려나오았다. 또 이 논은 아래 넷을 목차로 해서 모두 설명하게 된다.

#모든 불법을 이해하고 쉽게 얻는 힘
첫째, 논에는 모든 불법이 상반됨이 없이 이해되는 위대함이 있다. 즉 소승에서부터 대승, 보살승과 바라밀과 바라밀행과 바라밀 끝에 들인 지관(止觀)과 밀승인 금강승에 이르기까지 한 유행이 부처 이르기까지의 차례를 안배하신 여러의 가르침을 뒤바뀌지 않게 차례 그 같이 모아서 이끌었기에, 이 논에는 모든 불법이 상반됨이 없이 이해되는 위대함이 있다.
둘째, 논에는 모든 경전이 요지(要旨)의 가르침(요지)의 가르침은 경과 또 경전의 내용과 일치하는 대화자들께서 허락을 얻어 저술하신 **論과 疏를 말한다**)으로 드러나는 위대함이 있다. 즉 스승을 모시는 방법에서부터 위파사나(毘婆沙)까지 경·논에 있는 도(道)의 모든 핵심을 갖추고, 간추려서 이들 모두에 지(止)를 수행(修行)해야 하는 것(止)을 수행(修行)하게 하고, 분석해서 수행(修行)해야 하는 것(止)에는 각각을 분석하는 지혜(妙觀察智)로써 분석

하고, 실천하는 차례를 모아서 이끌었기에 모든 경전이 요지의 가르침으로 드러나는 위대함이 있다.

셋째, 논에는 승리자의 사상을 쉽고 편하게 얻는 위대함이 있다. 즉 경·논 등의 위대한 경·논들이 요지의 가르침의 최상이라고 완전히 익히지 않은 초학(初學) 중생은 올바른 말속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곳에 머물러도 그 뜻을 얻을 수 없고, 설사 얻게 되더라도 아주 긴 시간과 매우 큰 어려움에 의지해야 하지만 곧 가르침 여기에는 경과 논·소의 핵심을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배웠기에 여러의 사상을 쉽고 편하게 알게 되는 위대함이 있다.

넷째, 논에는 큰 죄행이 저절로 막아져 가는 위대함이다. 즉 앞의 위대한 셋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법을 비난하는 등의 큰 죄행이 저절로 막아져 가기에 큰 죄행이 저절로 막아져가는 위대함이 있다.

#티베트 글 직접 번역 탐독하면 친숙해져
그렇기에 이 논은 한쪽의 종파로 치우쳐 내려온 가르침이 아닌 일체 모든 불법이 정통으로 전해온 근본이고, 불보살께서 증명하시고 인(印)을 찍으신 것이기에 누가 읽게 되어도 크게 가피가 있게 되는 그런 것이다. 그렇기에 이 논을 다른 말로 '논 중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울러 이 논은 영어나 한문본을 번역한 것이 아닌 티베트 글을 번역한 것이기에 여기에서 사용되는 어법과 설명의 방식이 처음 읽는 이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오히려 티베트 글은 우리와 같은 어족의 문화권이기에 한 두 차례정도 관심을 가지고 읽는다면 금방 친숙해지리라 생각된다. 또 후시 한문과 대조해서 볼 기회가 있다면 한문이 가지고 있는 장단을 볼 수가 있어서 더 한층 깊고 넓게 불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누군가 읽는다면 분명히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간략히 소개했다. **도향(남인도) 티베트 사원에서 정진 중**

다들 카페에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을 쳐보셨어요? 원주생식은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입니다. ISO9001품질인증업체. 자연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원주스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원주생식은 원주스님의 손길과 정성. 자연건강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연이 가르쳐준 그대로의 방법대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을 제대로 살려 원주생식을 만듭니다.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자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전하는 원주생식. 80,000원. 원주생식은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입니다. 80,000원. 원주생식은 원주스님의 손길과 정성. 자연건강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90,000원. 원주생식은 원주스님의 손길과 정성. 자연건강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90,000원. 원주생식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90,000원. 원주생식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90,000원. 원주생식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90,000원. 원주생식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90,000원.

관세음보살 손금 (22K) 목걸이 메달. 대자대비의 발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장등록 출원 중) 자비구세 정신의 핵심으로, 천 가지 지혜 눈으로 중생계를 살피고 천 가지 구원의 손길을 펴서 고택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구하시려는 넓고 깊은 원력을 지니신 대자대비의 유일한 진신 관세음보살님... 그 위신력과 가호를 항상 간직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업성취, 신수대길, 재수대통, 복덕구족, 만사형통, 승진, 합격, 안전, 성취발전, 심재발란 관세음보살님 명교역년 일시소멸. 확대[앞], 확대[뒤]. ※ 메달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재질 : 순금 22K, 케이스 : 케노텍(항공기 유리스제) / 크기 : 가로 2cm x 세로 3cm. 사찰 불사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스님들께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10-7208-3777, 010-2869-5777.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산100번지 각원사 해일 합장. 농협 231080-52-220201 이규상

(株)天星建設. 석·남골당 전문. 석·남골당 조성공사. 석·굴법당 조성공사 전문. 석·축대 및 보수공사. 석·저장실, 보관실(과일). 석·파타로운 석·길공사. 석 파는 공사 전문 업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상선1구 260-1. 대표전화 010-4581-4841. 전화 041)331-6863~5. 팩스 041)331-6862. 핸드폰 010-4035-3354.

해동불교무량종 종도모집. 해동불교무량종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자각, 계승, 각행원만의 근본교리를 바탕으로 상구보리하회중생의 보살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생활 속의 적극적인 포교를 중시하고 합니다. 총재 및 조실 : 김정일 (법일 대종사). 종정 대행 총무원장 : 학성 (무량 대종사). 중앙고사법계위원장 : 박찬옥 (준파 종사). 중앙교육원장 : 신원식 (도우 종사). 중앙포교원장 : 이광춘 (해엄스님). 중앙사정원장 : 김광윤 (성일스님). 비서실장 : 조종훈 (광원스님). ◆ 사명등록 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이력서 소장양식 1통. 승려, 교임, 전법사 신고서 1통. 명함판 사진 7매. (재)해동불교무량종. 총본산 : 전남 여수시 소리면 관기1구 10번지 무량사. 전화 061)683-7147 / 010-3114-4074. ※ 입종시 사명등록증과 주지인명장과 법계증서, 수료증서, 승려증명서 드립니다.